

# 전북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한목소리'

민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면담  
서해안철도 등 전북 SOC  
국가 기본계획 반영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윤준병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난 2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면담을 마친 뒤,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윤준병 의원실 제공)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전북의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윤준병 위원장(정읍·고창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2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해안철도와 새만금 국제공항 등 전북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국가기본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윤준병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한병도·안호영·이원택·신영대·박희승·이성운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전북 원팀(One-Team)의 결속력을 과시했다.  
전북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U자형 철도망 구축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서해안철도(군산~목포선)를 정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재차 건의했다. 서해안철도는 현재 한반도 철도망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으로, 전북과 서남권 발전의 핵심 축

으로 꼽힌다.  
이울러 의원들은 전북이 내년도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연 성과를 토대로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내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고속도로(제3차), 광역교통(제5차), 국도·국지도(제6차) 국가기본계획에 전북 주요 SOC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북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과 새만금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수도권·대기업·SOC에서 소외된 전북 3중 소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윤준병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면담은 전북의 미래 비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진지하고 열띤 논의 속에서 진행됐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SOC 예산과 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 정치권이 도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주무 부처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며 "김윤덕 장관이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북 정치권이 원팀으로 끝까지 쟁기겠다"고 밝혔다.  
/0만호기자 · 정음=김대환기자

## 전북서 혁신당 정책 방향 공유

조국 당대표, 내일 전북 순회 방문... 민생 현안 경청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사진)가 오는 27일 전북 지역을 순회 방문하며 지역 민생 현안을 직접 듣고 정책 방향과 정치개혁 비전을 공유한다.  
조국혁신당 대변인단 명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국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정읍 생고을시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북 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조국 대표는 생고을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원로와 시민들을 만나 민생 경제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은 서민 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비전도 함께 제시한다.  
오후에는 부안으로 이동해 오후 12시부터 부안군 상설시장 일원에서 민생 현장 방문 및 정책설명회를 연다.  
이 행사에는 부안군민과 당원 등

약 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국 대표는 상인들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 3시에는 고창군 고창읍 W27계에서 정책설명회이자 민생공간 '썩' 카페 행사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고창 지역 현안을 주제로 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주민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된다.  
조국 대표는 공식 일정에 앞서 고(故) 이훈환 대법관의 뜻을 기리기 위해 유족들과 함께 참여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정도는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전북 집중 방문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당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행보"라며 "전북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0만호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 '참사'로 인정해야

민주 안호영 의원, 피해구제 특별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주·진안·무주)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 책임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중진 사업자 분담금

으로 꼽힌다.  
이울러 의원들은 전북이 내년도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연 성과를 토대로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내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고속도로(제3차), 광역교통(제5차), 국도·국지도(제6차) 국가기본계획에 전북 주요 SOC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북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과 새만금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수도권·대기업·SOC에서 소외된 전북 3중 소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윤준병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면담은 전북의 미래 비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진지하고 열띤 논의 속에서 진행됐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SOC 예산과 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전북자치도, 간부공무원  
생성형 AI 교육 마무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을 마무리하며, AI 기반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도와 도의회 소방본부 등 4급 이상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생성형 AI 역량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정책결정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4기, 2일 과정으로 운영됐으며 국·과장급 간부공무원 150명이 참여했다. 정책 기획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실습을 활용채자를 제작하고, 반복 학습이 가능한 교육 동영상도 함께 제공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교육 과정에서는 정부 AI 정책 방향과 글로벌 기술 환경을 비롯해 AI 윤리와 책임 있는 활용, 생성형 AI 기반 정책보고서 작성, 공공데이터 분석·시각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AI 활용 전략 등 정책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고위직 교육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팀장급과 실무담당자, 공기업·출연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직급·직무별 생성형 AI 실습 중심 교육체계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0만호 기자

##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해법은 신세계 스타필드 전북 유치"

'도지사 출마' 정현을 익산시장



이 주말마다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전북 도내 백화점은 전주 롯데백화점 1곳뿐으로, 광주와 대전 등 인근 도시와의 생활문화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정 시장은 스타필드 유치를 통해 단

순 소외 공간을 넘어 문화·여가·체험이 결합된 복합생활 SOC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한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과정에서 신세계와 협력을 언급하며, 이미 스타필드 전북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스타필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북의 이미지를 바꾸는 핵심 인프라"라며 "도민 자존심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0만호기자 · 익산=이재춘기자

## "드론 택시 프리존, 전주의 미래 교통·산업 전략"

전주시장 출마 조지훈 특보



되고 있으며, 제주도는 이미 버티포트 예산을 확정해 본격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0만호기자

조 특보는 "전주의 하늘길을 열어 전주에 오면 전주 전역을 편리하게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관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주 전역을 규제 완화와 실증이 가능한 '드론 택시 프리존'으로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케이블카 같은 기존 관광시설로는 지역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며, 도심 항공교통이 시민 생활 혁신과 AI 기반 미래 산업 확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만호 기자

## '국기 태권도 위상 강화' 전북 체육발전 공로 인정

문승우 도의회 의장  
대한체육회 '감사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24일 전북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평생을 체육인으로 살아온 문승우 의장은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중학교 때 태권도를 시작한 문 의장은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고 이후 개인 도장을 마련해 후배들을 양성했다. 군산시 태권도협회장과 군산시 체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군산을 전북 태권도의 중심으로 이끌었다.  
태권도 공인 7년의 마스터인 문 의장은 지난 7월 도내 최초로 태권도인의 최고 영예인 명예 9단증을 받았고, 현재 전북체육역사기념관 건립 IT 위원장을 맡아 체육 유산 보존과 청소년 교육 공간 마련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의정활동을 통해 '국기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 제안은 물론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무주태권도원이 세계 태권도인들이 모여드는 성지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제시했다. 또 체육인 복지 정책 개선과 스포츠 외교 기반 마련 등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번 감사패는 전북 체육 발전을 갈망하는 체육인들이 저에게 부여한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고, 체육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직과 정 책을 잇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만호 기자

## 도의회,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철)는 24일 최백렬 전북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최 후보자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 제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점, 그리고 특정 시기 논문 집중 게재 논란 등 도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후보자가 지난 34년간 대학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전북의 지역 발전과 조직 혁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만호기자

며 '적격'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전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현안에 대한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정부의 5중특 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 전략을 마련할 것과 △1조원 규모의 '피지컬 AI' 국책사업이 실질적인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화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연구원 내 AI 전문 인력 및 연구 부족 문제를 즉시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  
/0만호기자

## 완주군의회, 법정무교육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지난 24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2025년도 제4차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유 의장을 비롯한 의원 1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등 법정무교육으로 진행됐다.  
/0만호 기자

완주군의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의회 구성원의 인격·성인기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뜻을 모았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의정연수와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0만호 기자